

AI 대신 SI, 시장을 구한 SpaceX



[Market Analyst] 강진혁 선임연구원

KOSPI는 4.2% 상승한 5,787.3p. SPCX 실적에 AI 수익성 우려 완화, 반도체 중심 반등→매수 사이드카
 :간밤 美 AI주 혼조(MU -1.0%, CRWV +1.7%) 속 금융·헬스케어↑→SPCX·SMCI 실적에 시외 AI주 반등
 :SPCX(시외 +8.1%) 매출 서프라이즈(+161% YoY), AI 매출 급증(+830%)하며 전체 절반 이상 차지+흑전
 →그간 Starlink 현금흐름 의존에서 가파른 SI(초지능) 매출 성장으로 CapEx 정당화하며 시장 의구심 진정
 :SMCI(시외 +15.6%) 잠정 매출 서프라이즈(185~195억\$)→AI 인프라↑(삼성전기 +3.7%, 효성중 +4.3%)
 :1~20일 전체(+105.4% YoY)·반도체(+222.5%) 수출 호조, 삼성전기(+7.2%)·하이닉스(+7.7%) 7%대 강세
 :외국인 현물(2,850억)·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+선물 매도 축소. 반대매매(미수금 대비 4%) 여진 후 반등
 :삼성에퍼스(+3.7%, 항암 신약 후보물질의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) 등 바이오(삼성바이오 +1.3%)↑
 :LIG D&A(-14.2%), 방사청의 향후 2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신규 수주 불확실성 확대

KOSDAQ은 2.3% 상승한 800.1p. 소부장·바이오 등 대형주 동반 투매 진정 흐름 속 800p 안착 시도
 :AI 인프라 투심 회복에 소부장(주성 +5.0%, 이오 +4.5%)↑+전일 상장한 클라우드 기업 엘리스(上) 반등
 :알지노믹스(+5.3%, 원형 RNA 국제 특허 등록) 등 바이오(알테오젠 +3.3%, ABL +2.8%)도 지수 지지
 :일부 로봇주 선반(티로보틱스 +2.4%, 유리기판 이송로봇 美 특허). 우주(스피어 +5.8%, SPCX 호실적)↑

달러·원 환율은 1.4원 상승한 1,327.4원. 수출기업 달러 매도 등 하방 압력 가운데 내일 금통위 대기
아시아 증시 상승. 일본(니케이) +1.4%, 대만(가권) +1.9%, 홍콩(항셱) +0.5%, 중국(상해) +0.1%

업종별 주가 등락률

